

현대사회가 될수록 사회는 복잡하고 인간관계의 나쁜 스트레스는 늘어나 여행자들은 농·산·어촌 등지의 관광농원, 전원관광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어촌목적지가 갖는 핵심적 매력은 이완(relax), 탈일상성과 색다른 체험일 것이다. 농어촌관광 개발의 역사는 알지만, 미처 어촌관광개발에 손도 쓰

민박·토속음식 적극개발 리조트·요양지로 적소

재미있고 그리움과 동경심도 충족시켜야

해양개발이 제2의 국토개발이라면 어촌관광은 관광의 대안이다.

왜냐하면 비교적 어촌은 아직 덜 개발되어 있고,

지방은 우리의 생명이 그나마 숨쉴 수 있는

유일한 틈이요 여백이기 때문이다.

기 전에 누적된 해양오염, 과도한 어장개발, 매립·간척 등으로 어장의 생산력이 지속적으로 감퇴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여가소득이 도시근로자나 농가소득보다 훨씬 밀돌고 있지만, 어촌이 미개발지로 관광개발을 위한 빈터로 여겨 개발의 목표가 돈이라는 종교관을 가지거나 농어촌에 어설픈 서구적·도시적 개발방식의 모방은 피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식으로 지방은 서구적 산업주의의 길 이외에도 사회발전의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손 대 현
해양대학교 교수

관광, 개발의 전도사

세계 전역에서 개발의 영향을 보아온 우리들은 관광 또한 물질문화에 대해서 끼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며,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붕괴와 개인의 정체성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 즉 사람들의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다. 개발이 부추기는 도시화와 산업화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개발의 가장 결정적인 실패는 그것이 양적분석에 지배되는 좁고 단기적인 관점에 의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개발이라는 종전의 한쪽 면만을 보고, 쉽게 상처를 받으면서 현대화를 갈구한다. 그들의 전통적인 방법은 뒤떨어진 것으로 보며, 아마도 현재 우리나라 어민들도 현대 서구 문화는 우리 것보다 훨씬 우월하게 보고 있을 것이며 특히 젊은이들이 열등감을 갖고 있다.

관광은 현대적인 것 모두에 현혹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 지방과 어촌 어디를 가나 획일적이며, 관광이 개발의 전도사처럼 너도 나도 관광개발의 바람을 타고 거의 비슷한 모양·모조품이 전국 곳곳에 준비하여 실로 천박하고 식상하다.

대개의 개발은 사람들을 갈수록 커가는 정치적·경제적 단위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개발은 돈(경제)을 버는 일이 제일 큰 관심사로 새로운 욕구

가 생겨나고, 탐욕을 자극하고 더 큰 불만을 낳는다. 개발은 오직 좁은 이기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손에 장악되어 사업의 운명과 그 성과의 귀속이 소수의 운영자 중심으로 향하는 현재의 개발 모델은 중앙집중적이다.

서구식 개발과 진보관 지속불가능한 생활방식

개발, 현대화, 서구화 그리고 산업화라는 용어들은 대체로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이 자본주의의 과정, 산업사회라는 그물을 통해서 우리의 다양한 세계가 갈수록 획일적 경제체제로 편입되고, 개성의 상실이 초래되고, 여러 가지 심각한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서구식의 기술적진보는 생활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면서 사람들로부터 시간을 빼앗아 버렸고, 이 기술적 진보와 경제성장이 생활수준을 높인다고 생각하며, 이런 경향을 진보라고 믿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구식 산업사회로 들어간지가 이미 오래며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가장 철저한 서구산업의 모범국이며 농어촌도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산업사회 기준에서 “농어촌은 뒤떨어진 곳, 개발되어야 할 곳, 합리화가

되어야 할 곳”으로 인식되었으며, 서구식 산업화가 부유하고 안락해질 수 있다는 환상을 쫓아 개발이 농어촌에게 매력적으로 보였고, 농어촌지역의 산업사회가 농어촌개발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다.

서구식 위주의 개발과 진보관의 결과는 이미 우리나라의 ①의식주 ②교육 ③의료 ④농촌 ⑤가족, 인간사회 관계 ⑥토착 문화 ⑦정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 것을 잃고 말았다.

서구식 강자의 채색된 렌즈를 통해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과학기술 문명의 패권적 지배밑에서, 서구식 산업문화의 압력밑에서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으며, 개발은 세계의 온갖 다양한 문화를 하나의 단일 문화로 축소시키고 있으며, 현대화의 추진력은 전적으로 세계화의 방향으로 향하고 지역 문화와 지역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세계 전역에 걸쳐, 서구적 이해관계는 비산업화 사회를 포위하고 진정으로 ‘토착적인 개발’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개발의 방향도 대개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늘날의 경제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고, 부자와 빈자간 간격을 넓히고, 경제적, 정치

적 힘의 집중화 방향으로 나아가므로 경제지향은 바람직한 이상이 될 수 없다.

현대의 서구분화는 보다 넓은 장기적인 관점을 잃어 버리고 점점 더 전문화되고 당장 눈앞의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므로 인간의 삶을 파편화, 공동체 감각을 잃게 하고, 전통적 윤리와 가치를 송두리채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전후 맥락을 짐작컨데 서구적 진보는 근원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생활방식이므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요원의 불길을 막아야 할 것이다.

어촌이여, 뛰기 전에 잘 보라

위에서 언급한 현대 산업문명의 본질적인 폭력성과 파괴성에 대한 사회 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제시하면 反開發概念(counter-development concept)내지 덜 개발된 지역 첨단 서구 기술이 아닌 적정기술로 건강한 지역규모의 문화와 경제로 꾸며나가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대체로 전망이 좋은곳(산, 바다, 호수 등)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에 전망대, 누각, 정자를 만든 예지는 큰 교훈이 된다. 자연보존도 훌륭한 관광개발이다. 불가피한 시설들은 자연속에 파묻혀 보일락 말라할 정도로 들

어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이다. 산업화다, 요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뛰니뛰니 해도 인간의 행복, 복지 삶의 질에 근원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인간의 복지가 말로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한 사회 복지의 진정한 지표는 국민총생산(GNP)이 아닌 국민총행복(GHP)이어야 한다. 산업국가는 인간의 심리적·사회적 정신적 행복 보지 못하는 것 같다. 많은 산업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지금보다 개발이 있기 이전에 훨씬 더 행복했으며, 진보는 없어도 마음의 평화가 있었다.

과거 농어촌 사람들의 낭만과 정서, 기쁨과 웃음, 사람들의 환하고, 구김없는 미소, 전통적인 생활양식, 건축, 풍경의 아름다움, 건강하고 활기찬 삶, 규칙적으로 장시간 일을 하였으며, 삶의 속도가 느슨했으며, 시간이 넉넉하고 부드러운 속도로 일을 하고, 놀라울 만큼 많은 레저를 누리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오염안된 완전식품을 먹었다.

지금 미국인중에서도 돈 있고 깨우친 현대적인 사람들은 흰빵보다 훨씬 비싼 들로 빵은 통밀 빵을 먹고 가난한 사람은 콘크리트건물에 사는데 비해 집을 천연재료로 짓고 살며, 보통사람은 폴리에스테일 옷을 입는데 반해 옷도 100%의 천

연 섬유와 혼모라고 쓰인 상표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러때 개발 방식은 오래된 기초를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가치관을 토대와 기초로 적극 활용하되 필요하면 그 위에 현대를 가미하면 될 것이다.

오늘날 환경 생명과과 등의 문제는 서구 중심적인 자연 정복사상의 결과이다. 너(자연)와 나(사람) 피아를 공존의 파트너로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 온 공존을 덕목으로 여겨왔던 전통사상은 올바른 것이다.

개발은 경쟁보다 공존의 상부상조적 경제공생사회, 지속가능성(sustainable)이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와 쓰레기의 재활용(recycling), 유기농 식품등 생태적 마을(ecovillage)을 건설하는 것이 방향이어야 한다. 인간관계(가족, 공동체관계)의 질과 깊이를 생각한 대가족 제도과 친밀한 작은 공동체가 말로 성숙하고 균형잡힌 개인들을 만들어 내는 건강한 사회이다.

그런고로 경제학자 E.F 슈마허의 말대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현대의 시대정신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을 향해 뛰기 전 우선 인간의 복지나 아니면 단기적 이익과 편의주의의 상업적 이익이나를 가름하면서 그 대답의 진정한 미래는 오랜 옛 지혜속

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 갈 수는 없다. 올바른 미래를 찾는 우리의 노력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가피하게 자연과의 더 큰 조화를 실천하는 길이다.

바다리조트를 향하여, 한국형 풍수지리 리조트 만들기

우리 국토면적의 2/3를 차지하는 산지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은 새로운 프론티어이다. 한반도는 북으로는 대륙과 연결되고 삼면으로는 바다가 연해있어 대륙성기후와 해양성기후가 상존하며 환경조건이 매우 다양하다.

이 때문에 각종 생물들의 서식처로 알맞은 장소도 수없이 많아 식물 4천3백종, 동물 8천종 이상이 모여 살았으니 국토는 좁을지언정 생물종은 엄청나게 다양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생태관광(eco-tourism)의 소재가 산, 계곡, 동굴, 해안, 도서 등 얼마든지 산재해 있다.

최근 觀光者들의 뚜렷한 관광여행의 추세는 환경파괴를 무릅쓴 극대개념, 즉 지속불가능한 硬性觀光(hard tourism)보다 조용히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색적인 지속가능한 軟性觀光(soft tourism)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 생태관광의 개념, 즉 어촌관광의 개발은 '리조트'(resort)의 사상을 잘 구현할 수 있다. 서구식 개발방식과는 달리 한국형 리조트 착상의 베이스가 될 풍수지리의 리조트가 그것이다. 리조트란 "몇번이고 되돌아 가는 곳", "빈번하게 다니는 곳"의 return의 뜻이 있고 불어로 resortir(활기, 기력의 의미)이다. 리조트 라이프란 일상생활과 비교해서 on과 off의 관계이며 어떤 리조트, 리조트와 리서치, 리조트 오피스, 리조트 맨션과 함께 '바다리조트'(sea resort)는 리조트의 주류이고 본질이다.

리조트는 일종의 독특한 공기가 흘러야 하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 마음의 풍요(heartful), 경제·공간·시간적인 여유가 집약된 공간이요 장치이다. 리조트는 자연과 만나는 장소이며, 자연이야말로 리조트에 있어 최대의 소프트웨어이며, 인간 자신은 자연 자체이며 자연감각은 모든 이데올로기보다도 강하다. 만약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리조트는 관광자의 경유지에서 체류지가 되어 종래의 가짜 레저에서 진짜 레저의 장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레저를 餘暇로 쓰는 것은 일본의 大正 13년, 즉 1924년부터 사용되던 것으로 현대에는 부적절한 용어를 우리는 그냥 답습하고 있음).

시골, 일종의 건강한 묘지?

어촌관광자원의 구체적인 몇 가지 개발방향과 전략을 열거해보고자 한다.

첫째 민박마을이다. 전원숙박에서 때묻지 않은 우리의 원초적인 자연의 '생명력과 축축한 토종인심을 맛보며 도시인들은 조용한 향·포구의 황토초가집을 동경하며 토종마을에서 신토불이 여행을 꿈꾼다.

관광농원, 농어촌 휴양단지과 주말농원 등과 연계전략이 필요하며, 민박마을은 가급적 조합형태로 내생적 개발(indigenous development)로 하되,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 네트워크가 되게 한다. 관련 당국은 제도·자금·기술·정보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값은 싸지만 질은 떨어진다"는 인상은 씻어야 할 것이다.

동네살리기, 마을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도시인들에게 탁 트인 경관과 고향체험센터의 터전이 되게 하여, U-turn(태어난 사람의 고향복귀)과 I-turn(무연고자의 이주)현상이 일어나게 한다. 이런 마을부흥계획과 함께 '1촌1품'개발 대책을 세워, 수산물·농산물·임산물예물·축산물과 공예품 등을 파는 기념품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민박과 함께 중요한 것은 향토음식의 개발이다. 유기농법과 어장에 의한 원료공급으로 토종음식 발굴과 정책 지원, 요리지도의 제작 등 편의제공으로 위생과 청결, 건강식과 미식(gourmets) 수준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생선회센터와 항·포구의 어시장(fish market)은 매력적인 포인트이다.

셋째, 리조트와 건강은 밀접한 관계이다. 콘크리트 숲에 갇혀 시든 현대인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며, 건강은 리조트의 커다란 메뉴이며, 리조트는 신체·정신·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 즉 well-being이 되기 위한 장소이어야 한다. 청정바다, 해수찜질, 해변, 해풍, 모래찜질(모래캡슐), 개펄(머드팩), 해산물, 山地, 송림, 온천, 꽃 등은 어촌지역이 제공할 수 있는 리조트와 요양지로서 適所(niche)이다. 이러매 바다리조트의 基地는 氣地이다.

넷째, “나는 시골에 흥미가 없다. 그것은 일종의 건강한 묘지이다”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시끄럽고 난잡하게 개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재미는 있어야 한다. 적합한 스포츠시설도 갖추어야 하며, 도시인들의 섬여행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을 채우는 일, 수많은 야생조수의 탐조관

광, 꽃재배단지(화훼) 조성, 그림·사진·조각·문학·음악·영화 등을 연출하는 아트 컨셉, 우리나라 해안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는 오염과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 필요에 따라 한·중간 매년 황해의 공동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일 등 한국의 종합적인 어촌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생활방식과 개발방식

해양개발이 제2의 국토개발이라면 어촌관광은 관광의 대안이다. 왜냐하면 비교적 어촌은 아직 덜 개발되어 있고, 지방은 우리의 생명이 그나마 숨쉴 수 있는 유일한 틈이요 여백이기 때문이다.

서구 문화적 눈가리개를 쓴 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물질의 풍요가 개발이라고 생각하고,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답습과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개발이 반드시 파괴를 뜻할 필요는 없다. 어디까지나 염두에 둘 것은 좀 멀리 내다보아 지속가능한 생활방식(sustainable lifestyle), ‘지속가능한 개발방식’(sustainable development)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민중의 역사, 지역문화가 살아 남는 길이요, 생태적·문화적 다양

성을 촉발하는 것이요, 그것이 참다운 삶이요, 그린 코리아(금수강산)의 명예요, 그린 르네상스의 깃발이다.

어촌관광개발의 몇가지 원칙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은 돈을 버는 일이 최관심사이고 개발의 전도사처럼 현대적인 모든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산업화와 서구식 위주의 개발과 진보관은 이미 우리나라도 기우뚱한 균형으로 기울어졌고 벌써 우리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으며, 근원적으로 서구식개발은 지속불가능한 생활방식임을 깨달았다. 서구화·산업화는 공존이 아닌 무자비한 경쟁이며 강자의 논리이므로 서구의 모델을 추종하는데서부터 우리의 독자적인 모델을 찾아야 한다.

둘째, 인간의 복지야말로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언설과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오랜 옛지혜 속에 있다는 가르침을 따라, 어촌관광개발의 방향은 생태적 마을, 軟性觀光으로 전개함이 바람직 하다.

셋째, 바다 리조트는 리조트의 주류이고, 리조트에는 일종의 독특한 공기가 흘러야 한다. 그것을 위해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게 하는 민박마을, 향토음식개발과 바다리조트와 건강전략을 제시하였다. ㉞